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FIFA U-20  
WORLD CUP  
KOREA REPUBLIC  
2017**

**5/20-6/11**

수원 SUWON 전주 JEONJU  
인천 INCHEON 대전 DAEJEON  
천안 CHEONAN 제주 JEJU



U-20 WORLD CUP  
KOREA REP. 2017



굿모닝 인천  
2017 MAY  
INCHEON MONTHLY MAGAZINE

05

MAY

다섯 번째 길  
아버지의 길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작도 - 별빛 바다  
45.5×56(cm) oil on canvas 2016

## 세상 밖 별, 이작도

마치 세상 밖 별 세계에 온 듯,  
복잡한 도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섬.

쏟아져 내리는 별빛에 온 마음을 적시며,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잠이 듭니다.

저 별빛처럼 아침을 맞는 아기의 눈은 더 깊어지겠지요.

새로 맞이할 아침만큼  
저물어가는 별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표지사진 류창현

다섯 번째 길:  
아버지의 길

06 가족은 나의 힘 소이작도 10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 식물 이야기

14 인천 바다 뱃길 인생 - ‘인천 꽃게’ 요리 3선 - 소래 꽃게 24 인천 길 인천 한류 30 오 필승 코리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32 인생 명장 사출금형 원용기 명장 36 드론 찰칵, 달리 본다 응봉산 송월동 40 정책사용설명서 노인 복지 사업

42 박물관 이야기 발굴조사 44 문화 캘린더 하늘을 나는 ‘피터팬’ 外 46 시정 뉴스 아시아 최초 NASA 연구소 송도에 ‘둥지’ 外

49 이미지 뉴스 미세먼지 50 의정 뉴스 상임위원회 회의 5월부터 ‘인터넷 생중계’ 外

52 찰칵. 인천 인천 사진 전시회 53 컬러링 인천 월미전망대 54 Info Box 2017 은퇴금융 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모집 안내 外

57 인천의 생물 이야기 굴업도와 왕은점표범나비 58 모닝 커피 한잔 59 몽(夢)땅 인천 골목



# 인천 통신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 ‘아이맘(I-MOM) 출산용품지원사업’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아이맘(I-MOM) 출산용품지원사업’의 모바일 상품권 계약 업체인 인천 지역 소재 이마트에서 출산 용품(기저귀, 분유, 젖병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길 원하는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관련 여러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육정책과(440-3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에 UN 산하 환경 보호 관련 국제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기후정책관실(440-8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부여성회관 내 수영장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서부여성회관 내 수영장은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현재 휴장 중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설계에 들어가 공사를 하는 과정은 약 6~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남구 학익 2동 주민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문 앞에 배출하시면 수거 일에 맞춰서 대형 폐기물 수거 업체가 수거해갑니다. 학익 2동은 매주 수요일에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며, 수거 업체는 삼원환경(820-7317)입니다.

똑!똑! 언제든 문을 두드리세요.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인천N방송, 소통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 시민 중심의 시청자 참여 방송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인천N방송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인천N방송이 보유한 영상 콘텐츠 3만여 개를 카테고리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VR360’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통해 최신 트렌드의 360도 VR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연수구와 함께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취업·창업 지원으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또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 등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의 지원도 병행한다.

새롭게 단장한 인천N방송 서비스 페이지는 PC에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N방송’을 치거나, 주소창에 ‘incheonN.tv’를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인천N방송을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면 바로 시청할 수 있다.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내 집’ 같은 인천

독자 이규태(83·부천시 소사구)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한 노 신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전화로 하면 될 것을, 책 받아보는 주소지를 변경하러 굳이 시청까지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이규태 독자님은 <굿모닝인천>이 창간된 1994년부터 줄곧 함께 해 온 진정한 애독자셨습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역사를 현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굿모닝인천>은 인천의 정체성을 담은 매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인근 도시에서 만드는 소식지를 거의 받아보고 있는데, 그중 <굿모닝인천>이 단연 최고라고 치켜세우십니다. 단순한 정책 홍보가 아닌,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지역에 대한 사랑이 샘 솟는다고 말입니다.

고향도 아닌 인천을 ‘내 집’으로 표현할 만큼 애정도 큼니다. 특히 인천의 발전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인천은 광활한 도시입니다. 그 넓은 터전 위에 잘 발달된 철도와 도로망을 볼 때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간은 서울보다 더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천은 사통팔달 교통망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독자님은 공연을 보기 위해 부천에서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자주 걸음 합니다.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서입니다. 특히 인천시립합창단의 공연은 빠짐없이 챙겨볼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인천이 이렇듯 큰 발전을 이루리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송도국제도시만하더라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지요. 앞으로도 인천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인천시에 큰 힘을 실어주며, 어르신께서 문을 나셨습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섬마을에 다섯째가 태어났어요~”

함께 살 부비고 서로의 마음을 물들이며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가족. 가족은 위로이고 안식이며 희망이다. 그래서 작은 섬에서 웅기중기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애뜻하다. 소이작도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김석진·오수진 씨 부부에겐 특히 더 그렇다.  
지금, 조용한 작은 섬마을이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장현선 자유사진가



## 자연과 가족이 친구인 다섯 아이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남쪽으로 44km, 쾌속선으로 1시간 30분 거리인 작은 섬 소이작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나란한 집들이 정감 있는 이 섬에, 몇 년 전부터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것 봐~ 벚꽃으로 이렇게 만든 꽃다발~ 예쁘지?” 머리에도 꽃아보고 손에도 한 다발,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닷바람과 함께 아이들 마음에 봄이 가득 내려앉는다.  
12살 현서, 10살 현지, 7살 현솔, 5살 현아, 2살 현민이까지,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보기 드문 다둥이 가족. 늘어난 식구 수만큼 행복하다는 김석진(42), 오수진(35) 부부는 따뜻한 날씨를 핑계 삼아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약진해변으로 향한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해변은 산골짜기에 꼭 박혀있다. 해변에 서면 앞으로는 바다가, 뒤로는 숲이 보이는 것의 전부다. 너무 호젓해서 일까. 바닷가를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학원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는 한적한 섬에서는 언니, 동생이 친구이자 가족이다. 신나게 바닷가를 내달리고, 바위에 붙은 굴도 따먹고. 끊임없이 놀거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에게 섬은 자연이 준 놀이터다.

## 함께여서 더 행복한 가족

“자상하고, 부지런해요.” 오수진 씨는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가족계획을 한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축복이라 생각하고 낳았던 거죠. 다섯째를 낳고서는 출산지원금 1천 만 원도 받았어요. 아이들이 복덩이인 셈이죠.” 현재 웅진군은 출산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살을 부대끼며 가족과 함께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김석진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교육 때문에 아내 혼자 연수동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저는 소이작도에서 생활하면서 한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모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 섬으로 들어왔죠.”





가족은 나의 힘

소이작도



스쿠버 강사이기도 김석진 씨는 고향인 소이작도를 휴양과 레포츠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싶다.

- 1.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마치 모녀같이 정겹다.
- 2. 아이들에게는 집 뒤의 나지막한 언덕이 사계절 썰매장이다.
- 3.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에는 사륜오토바이가 제격이다.

날이 좀 더 풀려 따뜻해지면 스킨스쿠버도 시작할 참이다. 도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곳엔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어차피 섬을 떠나야 해요. 큰애(현서)가 5학년인데, 현서의 섬 생활은 이제 2년 남은 거죠. 물으로 가기 전에 카누랑 스킨스쿠버를 가르치면서 남다른 추억을 만들어 주려구요.” 섬에 사는 부모들의 고민은 단연 아이들 교육이다. 섬에서 태어난 김석진 씨 역시 물에 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섬 안팎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고향 소이작도에서 시작한 새로운 꿈

“저희 어머니와 저도 소이작도에서 태어났어요.” 소이작도 토박이 김석진 씨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제물포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혼자 물으로 나와야 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생활의 무게가 너무 벅차서일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대헌전문대학(현 재능대학교)에 진학한 뒤 해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스쿠버 숨을 운영하는 군대 선배를 따라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말레이시아 이민을 꿈꿨다. 하지만 2004년 말레이시아에 뒀친 쓰나미로 꿈이 좌절됐다. 전화위복이라 했던가. 그 혼란스럽던 시기를 함께하던 지인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고향 소이작도에서의 새

로운 꿈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현재 마을 이장이기도 한 그는 소이작도를 휴양과 수상 레포츠의 명소로 가꿀 생각이다. 막연하지만은 않다. 이미 소이작도는 스쿠버 дай버들 사이에선 소문난 다이빙 명소이기 때문이다. 물 밑에는 싱싱한 전복과 해삼이 가득하다. 해녀와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해산물 채취에 별다른 제약도 없다. 낚시꾼들도 줄을 잇는다. 새우는 해저 사구의 모래밭에 알을 낳는데, 새우를 먹고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래밭 주변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깊은 수심과 다양한 어종은 덤이다.

‘섬 프로젝트’로 섬이 젊어졌으면

아침마다 아이들은 등교하기 위해 300m 떨어진 대이작도 가는 배에 오른다. 소이작도에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대이작도 초등생 2명이 내년에 중학교로 진학하면 초등학생은 소이작도 애들뿐이에요. 그나마 소이작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근처 섬들에 비해 아이들이 있는 편

입니다. 예전엔 생업이 어업이었지만, 지금은 섬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다양해서 귀농처럼 섬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소이작도의 관광 활성화를 꿈꾸는 김석진 씨. 그는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섬 프로젝트’ 덕에 소이작도에도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그저 환경에 기대어 살았는데, 지금은 섬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책이 추진되니 주민들 스스로 섬에 대한 발전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기대한다. 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면, 섬의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섬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되면 아이들이 통학선을 타거나 부모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바다를 닮은 순수한 섬마을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환하게 웃는 엄마 아빠, 그들을 빼닮아 한결 같이 밝은 다섯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미래를 희망해본다.





### 갑부의 고장, 강화

강화 여인들의 손재주는 탁월했다. 화문석을 짜던 섬세한 손은 400여 년 전 부터 직물을 짜서 내다팔 만큼 탁월했다. 1910년대 개량 직기가 보급되었고, 두 집 건너 한 집씩 수족기로 인조견(비단)을 짤 정도로 강화엔 각종 직물이 넘쳐났다. 말리기 위해 들판에 걸어 놓은 하얀 천이 마치 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길처럼 보였다.

당시 판로는 뚜박이 행상에 의존했다. 강화 부녀자들은 바닷길을 건너 전국으로 비단 장사 행상 길에 나섰다. 이른 봄이 되면 남자 상인이 여러 직물들을 구입한 뒤 부녀자 예닐곱 명을 고용하여 객지로 장삿길에 나섰다. 고을 주막이나 마을 가게에 근거지를 정한 뒤, 포목을 머리에 이고 뿔뿔이 헤어져 집집을 돌며 물건을 팔았다. 직물 한 장에는 제작부터 판매까지

강화 여인들의 역척스러움이 그대로 배어 있다.

가내 수공업 형태였던 강화의 직물산업은 1933년 인조견 공장 조양방직이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설립되면서 기틀을 갖춘다. 1934년 조양방직의 50여 대 역직기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를 강화도에 끌어들이기 위해 손과 발에 의존하던 강화의 방직산업은 대량 생산의 길로 들어선다. 강화읍 관청리 살창부락(구)한전 자리에 백열등이 켜졌을 때, 전깃불을 구경하기 위해 강화읍은 물론 선원면, 송해면 일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육지의 웬만한 도시보다 먼저 전기와 전화가 들어온 것은 순전히 직물 산업 때문이었다. 이 시기 강화는 전국의 갑부 고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이상이었다.

## ‘메이드 인 강화’ 멋쟁이 필수품 ‘웹블리넥타이’

강화도는 돌맹이 하나, 나무 한그루 허투루 볼 수 없는 곳이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함축적으로 품고 있고 산과 갯벌 등 생태환경은 ‘청정1급’ 그 자체다. 이곳에 한때 ‘공장’들이 즐비했고 높다란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바람에 휘날렸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강화군에는 1916년 강화직물조합이 설립될 만큼 섬유 생산 시설이 많았다. 365일 직조기 소리가 강화 골목길을 가득 채웠다. 1960~70년대에는 제일모직이나 선경보다 규모가 컸던 공장이 있었을 만큼 직물산업이 전성기를 누렸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국수발을 말리는 듯한 천 말리기 모습



은하직물 작업 모습. 현재 강화 내 소창 공장 11곳이 가내 수공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 2018 올해의 관광도시

### 강화 직물 이야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100년 넘은 기계 앞에 선  
은하직물 이병훈 (85) 대표.

1933년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조양방직의 사무실.  
2013년 TV드라마에서 옛날국수집으로 등장했다.



강화읍 내 옛 심도직물 터에 남은 공장 굴뚝의 일부.  
원래 높이는 30m가 넘었다.

### 조양방직과 심도직물 쌍두마차

조양방직과 함께 강화의 경제를 이끌어간 쌍두마차는 1947년 설립된 심도직물이었다. 매일 노동자 1천 200여 명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며 직조기에 매달렸다. 당시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던 최고급 ‘웹블리넥타이’를 생산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 들어 송해면, 선원면에 이어 1960년대 강화읍, 하점면까지 직물 공장이 확산되었다. ‘철컹철컹’ 수천 여대의 역직기(옷감 짜는 기계)에서 밤낮으로 나는 소리가 섬 전체에 진동했다. 직물공장 종업원이 강화읍에만 4천여 명이었다.

1970년대 강화에는 조양방직과 심도직물을 비롯해 이화견직, 경도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공장 60여 개가 있었다. 인조견, 특수면직(광목), 소창, 넥타이류, 커튼 직물 등을 생산했다. 당시 섬유를 생산하는 대구, 나일론으로 유명한 수원과 더불어 전국 3대 직물도시로 손꼽혔다.

강화 여인들이 있는 한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강화 직물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다. 나일론 등 인조 직물이 등장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현대식 섬유공장이 들어서면서 강화 직물은 직격탄을 맞았다. 섬유산업 합리화 정책 때 현금 보상을 받고 방직기를 폐기했다. 직물 짜는 사람들도 섬을 떠났다. 역직기 소리도 희미해졌다.

### 평화직물, 체험관으로 부활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강화 내 소창 공장 11곳이 가내 수공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소창은 이불이나 베개 따위의 안감이다. 옛날에는 기저귀로 많이 쓰였던 면직물이다. 강화의 대표 직물인 소창은 짜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오랜 세월 친숙했던 옷감이었지만 지금은 소창 자체가 잊히고 있다.

강화 소창이 부활한다. 관광 상품으로 돌아온다.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 사업’ 10개 군·구 공모전에서 ‘강화 소창직물 육성사업’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강화군은 소창산업 육성과 관광 상품화를 위해 홍보·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1930년대에 건축된 평화직물 공장과 부속 한옥 그리고 일본식 별채 가옥을 활용한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간 직조기 30대와 종업원 60여 명이 난초와 봉황이 곱게 새겨진 각색 양단을 생산했다. 공장 터에는 대량 생산을 이끌었던 나무 전봇대 두 개가 그대로 남아 강화 직물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있다.



강화 소창 홍보·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평화직물.  
당시 사용했던 2개의 나무 전봇대가 그대로 서있다.



### 온천욕에는 소창 수건이 제격



강화직물조합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넘었다. 강화군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계해 직물산업을 재조명하기 위해 교육 및 체험 전시관을 조성한다. 이에 발맞춰 ‘소창(면직물)’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으로 소창 손수건과 행주 등을 선보였다. 염색을 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소창 직물 위에 천연 디자인을 가미해 문양을 넣었다. 소창 손수건은 고려시대 도읍지였던 점을 감안해 고려황실문양을 입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소창 행주는 다산의 상징인 포도 문양을 넣어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강화군은 최근 개장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 이용 시 흡수성, 통기성이 탁월한 무형광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강화직물 소창 수건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찌  
꽃게만을  
건지랴...

아버지,  
바다에서  
‘희망’을 낚다



이른 새벽, 배를 탄다. 서쪽 바다 깊숙이 숨은 꽃게를 찾아.  
아버지는 파도가 파랗게 달려드는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펼럭이는 갯대에 만선을 꿈꾸며 꽃게를 잡아 올린다. 건지는 것이 어찌 꽃게뿐이라.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억척스럽게 그물을 올리며, 물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떠올린다.  
그가 낚아 올리는 건 삶의 ‘희망’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새벽 세 시, 비 내리는 포구

사월의 새벽 밤바다는 매섭다. 육지엔 벌써 봄이 무르익었건만, 바닷가엔 비릿한 해기를 품은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 분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 대자연은 고된 항해를 앞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 주는 법이 없다.

새벽 세 시, 소래포구에 도착했다. 모두 잠든 새벽길을 지나 다다른 육지의 끝. 출항을 기다리는 크고 작은 배들 사이에 분주함이 새어 나온다. 징검다리를 건너듯 정박해 있는 배들을 건너고 건너 ‘삼영호’에 오른다. 바닥엔 아직 갯벌이 흰히 드러나 있다. ‘언제쯤 출항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무섭게, 물이 차오른다. 물사람의 괜한 염려였다. 컴컴한 하늘 아래 어느새 검은 물결이 출렁거린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괜찮겠어요?” “비 오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인가. 비 온다고 물고기가 젖나. 우리야 항상 물 맞으면서 하는 일이니 상관없어요.” 비를 맞나 파도에 맞나 물 젖기는 매한가지다. 비 바람과 안개를 헤치고 필사적으로 고기를 잡아 온 세월이 아니던가.

이윽고 새벽 네 시, 꽃게잡이 배가 밤의 정적을 깨고 바다를 가로지른다. 근처에 있던 어선들도 하나둘 뱃고동을 울리며 불빛을 더한다. 여러 대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니, 어둠 한가운데서도 외롭지 않다.





견디기 힘든 건, 비바람이 아니다

배는 포구를 빠져나가 파도를 넘으며 먼 바다로 나아간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다. 삼영호 사람들이 하나둘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을 청한다. 그 틈에 켜 엔진 소리 가득한 선내에 몸을 기댄다. 쉴 새 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릴 바다 사내들이 한숨 돌리는 유일한 시간이다. 어느덧 수면 위로 새벽 여명이 스민다. 배 한편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주방을 맡은 선원이 밥과 찌개, 밑반찬을 갑판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는다. 하나둘 둘러앉아 이른 식사를 한다. 어색한 기운이 감돈다. 뱃사람들과 그들이 뜻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아직 서로가 낯설다. 배를 얻어 탄 데다 밥까지 얻어먹는 게 미안하여 묵묵히 젓가락질을 하다, 음식 맛이 좋다며 칭찬을 건넨다. 그가 환히 웃으며 답한다. “그럼 음식 맛 좋지. 반찬도 매일 달라. 먹은 건 또 안 먹거든. 우리 선원들 입맛이 굉장히 ‘하이클래스’야”

배는 열두 시간을 바다에 떠있었다고 했다. 파도가 요동치기라도 하면 인근 섬으로 들어가 며칠이고 더 머물 수도 있다고 지레 겁을 준 터였다. 밥알을 씹어 삼키며 생각에 사로잡힌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높다란 파도, 쏟아지는 비, 뱃멀미…. 하지만 이제서 어디로 물러설 것인가. 또 바다 위 ‘극한직업’이 이들에겐 일상이 아니던가. 갑자기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이 하찮고 부끄러워진다. 배를 두둑이 채운 선원들이 제자리로 가 때를 기다린다. 굴업도 개머리 언덕에서 20분쯤 더 갔을까. 드디어 ‘때’가 왔다. 오전 여덟 시경 그들이 뿌려놓은, 첫 번째 그물을 끌어올

렸다. 아뿔싸. 건져낸 그물에서 쓰레기가 와르르 쏟아져 내린다. 기다렸던 꽃게는 고작 네 마리가 걸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혹스럽다.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엄청나요. 바다가 깨끗하지 않으니 물건도 없고. 이럴 때마다 힘이 빠져요.” 17년째 뱃일을 한 베테랑 선원 최영철(57) 씨는 바다일이나 육지 일이나 힘든 건 같지 않냐며, 몸 쓰는 건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꽃게가 잡히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는 견디기 힘들다.



## 인천 바다

## ① 뱃길 인생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거친 파도와 바람이 생명을 위협해도 기어코 배를  
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들의 운명이다.

## 아버지, 다시 바다에 나가다

이후로도 삼영호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큰 시곗바늘이 네 바퀴 돌때까지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이어졌다. 작업은 철저하게 분업화돼 있다. 한 사람이 도르래를 돌려 그물을 올리면 누군가는 갑판 위로 쏟아내고 또 누군가는 꽃게들을 일일이 그물에서 떼어낸다. 정리한 그물은 바다로 내려 다시 고기 잡을 준비를 한다.

꽃게만 잡히는 게 아니다. 갯가재, 아귀, 농어 별게 다 걸려 올라온다. 갑판에 모여 앉아 온갖 바다 것들을 일일이 구분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럴 때면 '뭐 건질 것이 없냐', 갈매기들이 귀신같이 몰려든다. 선원들이 바다로 던지는 잡어들

을 낚아채기도 하는데, 새우과자 맛에 못 미치는지 그대로 뱉어 내기도 한다.

삼영호의 선장 이춘우(50) 씨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물을 던지고 있다. 연안부두에서 큰 배를 몰던 아버지는 돈이 된다는 말에 온 가족을 데리고 포구로 흘러들어왔다. 송의동에서 소래까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외할머니는 어부의 아내로 살아갈 딸 걱정엔 눈물을 흘리셨다.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거친 파도와 바람이 생명을 위협해도 기어코 배를 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배 한가득 싱싱한 꽃게가 차오르고 만선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으리라.

이제 귀항이다. 새벽 네 시에 닻을 올렸던 배는, 꼬박 열두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포구에 다다랐다. 태양은 야속하게도 물에 다 이르고 나서야, 배가 나아가는 길에 빛을 내어주기 시작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새벽바람 맞아가며 먼 바다에서 건져온 꽃게를 배에서 내려 경매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진다. 뱃고동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목소리에 포구가 활기를 띤다. '1킬로그램에 3만 5천 원'. 진달래가 만개하면 꽃게 철이라고 했다.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 어획량이 적지만 꽃게가 실해서 가격이 잘 나왔다. 햇살이 비추기 전부터 시작된 삼영호 사람들의 고된 하루에, 이제야 쉽표가 찍힌다. 어부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끈끈한 바닷바람이 스친다. 몇 시간 후면 아버지는 다시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할 것이다.



# 봄결처럼 보드레한 네 속살

꽃게가 제철이다. 봄에는 암꽃게가 알을 배 실하고, 그 풍미가 절정에 이른다.  
국립수산물연구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올봄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을 1천500~2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봄, 인천 꽃게로 풍성하게 차린 밥상.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요리 진희원 스타일링 양수정 어시트턴트 강지인, 엄한샘



디자인하는 푸드 스타일링 전문가 진희원은 현재 Cook & Styling 실버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데코한 냄비 하나>, <식사하셨어요?>도 시력이 필요한 모든 순간> 등이 있다.

• FOOD RECIPE 1 •



## 게감정

게의 등딱지를 떼어 소를 넣고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걸쭉하게 끓인  
궁중음식. 곱게 다진 속 재료가 부드러워 입에서 살살 녹는다.

### 재료

꽃게 2마리, 두부 40g, 간소고기 50g, 숙주 40g, 무 1/2 개, 계란 1개, 밀가루 3T,  
파 1/2 개, 식용유, 다진 마늘, 고추 1/2, 양념장(고추장 3T, 된장 1T, 맛술 1T, 소금  
1T, 다진 마늘 1T, 후춧가루, 물)

### 만들기

1. 게는 손질한 후 속살을 발라내고 남은 다리로 꽃게 육수를 낸다.
2. 꽃게 다리를 건진 후 ①에 양념장 재료와 무를 나박 썰어 끓인다.
3. 숙주는 데쳐서 다진다.
4. 발라낸 게살, 으갠 두부, 소고기, 숙주나물을 넣어 치댄다.
5. 게 껍질에 밀가루를 바르고 반죽을 채워 넣는다.
6. 반죽을 채워 넣은 부분에 밀가루와 계란 옷을 입힌 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는다.
7. 구운 게 껍데기는 육수에 넣어 끓이고, 어슷 썬 파와 고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 FOOD RECIPE 2 •

## 꽃게 푸실리

꼬불꼬불 푸실리 파스타와 꽃게의 만남. 파스타의 쫄쫄 씹히는 맛과  
엔초비의 짭조름함, 꽃게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 재료

꽃게 1마리, 푸실리 120g, 곰보 양배추 1/4통, 엔초비 5마리, 올리브오일, 마늘

### 만들기

1. 푸실리 면을 삶는다.
2. 꽃게는 살을 모두 발라 모은다.
3. 엔초비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4. 곰보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 잘라둔 후 소금을 뿌려 간을 죽인다.
5. 올리브유를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을 볶다가 엔초비와 게살을 함께 볶는다.
6. 푸실리 면을 넣고 볶다가, 채 썬 양배추를 넣고 한 번 더 볶으면 완성.





• FOOD RECIPE 3 •



## 꽃게 카레

싱싱한 꽃게와 카레 특유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미각을 유혹한다. 꽃게 몸통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계살에 뜨끈한 밥을 비벼 먹는 맛이란.

### 재료

게 4마리, 양파 1개, 달걀 1개, 쪽파 100g, 치킨스톡 1/2C, 카레가루 1/2C, 전분 1/2C, 올리브유, 다진 마늘 2T, 타이고추 8개, 코코넛 밀크 1½C

### 만들기

1. 게는 깨끗이 손질해 4등분으로 자른 후 물기를 제거한다.
2. ①에 전분을 묻혀 튀김기름에 바삭하게 튀긴다.
3. 양파는 껍질을 벗겨 얇게 채 썰고, 쪽파는 깨끗이 손질해 5cm 길이로 자른다.
4. 볼에 치킨 육수와 카레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 카레를 만든다.
5.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타이 고추를 넣고 볶은 후 카레를 넣고 끓인다.
6. 팬에 코코넛밀크를 붓고 다시 한 번 끓인 후 손질한 채소를 넣고 살짝 익힌다.
7. 팬에 게를 넣고 버무리듯 볶은 후 달걀물을 넣고 잘 저어가며 섞는다. 달걀이 익으면 완성.

## 서해 바다, 인천시가 지킨다 꽃게는 풍년

울봄, 인천 앞바다가 풍년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울봄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을 1천500~2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 풍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어업인 지원 민·관·군 협의회’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연평어장의 조업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고, 조업구역을 801km²에서 815km²로 확장했다. 또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입해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NLL 인근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860기를 설치하고, 올해도 70억 원을 들여 방지시설 70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문의 시 수산과 ☎440-4862,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745-0620, 0617

## 이 봄, 소래 꽃게

꽃게 맛은 얼마나 신선한가에서 판가를 난다. 싱싱한 꽃게는 살결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입안에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자월도와 덕적도 인근에서 잡은 꽃게는 그날 소래포구로 들어와 바로 팔린다. 그 맛의 차이는 분명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꽃게는 4월에서 6월, 알을 낳기 전에 잡은 암게가 가장 실하고 맛이 좋다. 저장 기술이 발달해 요즘은 어느 때라도 꽃게를 맛볼 수 있지만, 감히 제철의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꽃게는 서해 전역에서 잡힌다. 꽃게 하면 흔히 연평도를 떠올리지만,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인천 꽃게 어획량의 절반이 소래포구로 흘러들어온다. 소래에는 어선 302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150척이 매일 바다로 향한다. 광어, 가오리, 조기, 민어, 새우 등 온갖 바다 것들을 잡아들이지만, 그중에서 돈이 되는 것은 단연 꽃게다.

꽃게 어장은 자월도와 덕적도 인근에 있다. 여기서 잡은 꽃게는 그날 포구로 들어와 바로 팔린다. 꽃게의 맛은 얼마나 신선한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소래 꽃게는 단연 으뜸이다. 먼 바다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잡아 수조에 가두어 둔 꽃게는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 차이는 분명하다. 싱싱한 꽃게는 단맛이 강하고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짙게 들어차 있다. 또 살결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소래 꽃게가 그렇다.

“자월도, 덕적도 인근에는 모래가 잘 발달돼 있어서 꽃게가 서식하기 좋습니다. 또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살아 껍질은 단단하고 속살은 탱탱하지요.” 고철남 소래 어촌 계장이 소래 꽃게 자랑에 신이 났다. 꽃게는 조수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사리 때 많이 잡히는데, 이달은 22일에서 25일까지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자. 알이 짹짹 들어찬 암게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금 ‘영업 중’

소래포구 어시장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재래어항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발디들 틈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어시장에 불이 나면서 온 시민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피해 입은 240여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50여 점포들은 계속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손님이 뚝 끊겼다. 시는 어시장의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소래포구 재래 어시장 남동구 포구로 2-72, ☎446-2591

### 여기도 꽃게 천국

인천종합어시장(연안부두 ☎888-4241~3),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





## 세계 사로잡을, 드라마 시티

# Drama City



‘all\_ways\_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110여 년 전 항구를 열고, 철도의 역사를 시작한  
인천으로부터 길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땅 길, 바닷길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하늘 길의 시작도 인천이었다.  
그 길 위에 서서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본다.  
그 다섯 번째로,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관광 명소로 거듭날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all\_location\_incheon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인천이 있다! 브라  
운관에 펼쳐진 인천이 세상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인천의 매력은 다채롭다. 아  
름다운 섬과 바다, 세계로 열린 공항과 항  
구를 품고, 화려한 빌딩 숲과 오래된 골목  
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국제공항에서 단 십오 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다. 또 영화진흥위원  
회와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  
하면서, 인천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아름다움을 쫓고, 시간에 쫓기는 영상 관  
계자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인천은 이미  
영화, 드라마, CF 등 다양한 영상물의 로케

이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금도 촬  
영이 한창이다.

“상암 시대가 열리면서 인천이 방송 영상  
제작의 최적지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은 기  
존에 드라마 세트장이 있던 용인, 화성 등  
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와 원도심, 바다와 섬 등 도시 전체  
가 로케이션지로서 저마다의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사들이 인천을  
선호합니다.” 영화 ‘올드보이’, 드라마 ‘별  
에서 온 그대’ ‘태양에 후예’ 등의 제작에  
참여한 (주)아라엔터테인먼트는 4년 전 인  
천에 둥지를 틀었다. 이 회사 한상현 부사  
장은 인천을 드라마 촬영에 최적화된 도시  
라고 치켜세운다.



### 전시장에서 종합 스튜디오로

봄 한가운데를 지나 바다 건너 다다른 영종도 ‘아라스튜디오’. 고른 한낮, 한적하던 섬 일대가 드라마 촬영 제작진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곳은 원래 ‘밀라노디자인시티’ 전시관이었으나 (사)한국영상미술진흥원에서 종합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해, 현재의 아라스튜디오를 탄생시켰다. 이 땅에 세계 최초의 디자인 콘셉트 도시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은 사라졌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상물들은 또 다른 가능성이 되어 영종도의 새 희망으로 꽃피고 있다.

‘나라님에게 검을 받는 장수가 되는 대신 나라님에게 검을 내리겠다.’ 홍길동이 폭군 연산군의 악랄함에 맞서 백성들 편에 서겠노라 굳게 다짐한다. MBC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 역적)이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역적’은 조선 건국 이래 백 년 만에 나타난 역사(力士)였던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폭력의 시대에 맞선 투쟁의 역사를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인천 영종도 아라스튜디오와 서구 연희 공원, 강화도 전등사와 석모도 보문사, 월미공원 전통공원지구 등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특히 스튜디오에는 홍길동이 만신(萬神)이 이르는 대로 ‘큰 나무 뿌리’를 찾아 들어간 굴속이 재현됐다. 굴직굴직하고 곧게 뻗은 나무의 웅장함에, 고개 들어 그 끝을 가늠해본다.

‘역적’은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손잡고 인천의 관광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한 첫 번



째 작품이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에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인천만의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올 초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주)아라엔터테인먼트와 ‘한류 드라마 콘텐츠 활용 및 한류 테마 관광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역적’이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 촬영 지원 넘어, 관광까지

인천엔 하늘과 바닷길이 활짝 열려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드라마는 최고의 한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머무른 장소는 관광지로, 그들이 사용한 제품은 곧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다. 한류 드라마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입은 2007년 4.8%에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17%로 성장했다.



“단순히 촬영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을 인천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현장에 갔는데 ‘팩트’가 없다면, 더 이상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이 성과로 이어져 인천형 관광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최성호 차장은 한류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인천 관광에 새로운 봄을 일으키고 싶다.

시작부터 확실히 다르다. 드라마 역적은 제작 전부터 중구와 인천관광공사, 제작사의 협의를 거쳐 인천 고유한 관광 콘텐츠가 스며들도록 기획했다. 향후 인천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며 생성되는 영상과 이미지, 세트장은 고스란히 관광 사업으로 이어진다. 인천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을 비롯한 지역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세트장은 촬영 후 관광 코스로화된다. 단순한 촬영 지원을 넘어, 인천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 ‘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그 안에 활기 넘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은 도시 인천.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영상 관계자와 시청자가 왜 그토록 이 도시를 사랑하는지 절로 헤아려진다. 인천에선, 당신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다.

### 드라마 속 인천, 어떻게 ‘돈’ 되나

중구와 인천관광공사는 드라마 촬영지에 역사, 문화, 관광 등 인천만의 콘텐츠를 더한 ‘지역 경제 융합형 수익 콘텐츠 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한류 영상 테마파크 사업까지 내다보고 있다.

- ‘존치 관광 체험형 세트장’유치
  - 영종도 아라스튜디오,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 내
  - VR 체험관, 홀로그램 영상, 의상 체험, 활쏘기 등

- 인천 중소기업 제품 PPL 홍보
  - 인천 촬영지 홍보 메이킹필름 제작, 촬영지 영상 및 배우 이미지 무료 사용
  - 장소 및 촬영협조 자막 홍보, 중소기업 제품 무료 간접광고(PPL) 등

- 수익형 아이템 개발
  -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드라마 DVD, 포스터, 캐릭터 상품 등

- 수익형 체험 관광코스 개발
  - 아라스튜디오(드라마 세트장) → 홍길동 산채 비빔밥 → 구읍배터 → 월미테마파크 → 월미전통 공원(드라마 촬영지) → 송월동동화마을 → 차이나 타운 → 국제신포시장

- ‘한류 영상 테마파크 사업’ 활성화 합작 매뉴얼 마련 추진
  - 한류 드라마 활용 역사·문화·산업·관광 융합형 콘텐츠 개발





드라마 '역적' 인천 관광 코스

# ‘역적’ 여행자의 마음을 훔치다

중구와 인천관광공사가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의 촬영지에  
인천만의 콘텐츠를 버무린 관광 코스를 선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타깃. 지금, 한국의 ‘로빈 후드’가  
당신의 심장에 유혹의 화살을 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아라스튜디오(드라마 세트장)

영종도에 있는 아라스튜디오가 배우의 땀과 열정  
이 스민 공간의 문을 활짝 연다. 홍길동이 만신이  
이르는 대로 ‘큰 나무 뿌리’를 찾아 들어간 동굴은  
역적의 메인 세트장.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허물  
지 않고 체험형 관광지로 온전히 남겨둔다. 로비  
에는 포토존과 전시 공간을 갖춘 드라마 홍보관을  
꾸며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요소를 더한다.  
추후 VR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공연장  
도 운영할 계획이다.



## 홍길동 산채비빔밥(단해)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있는 ‘단해’는 1987년에 문을 연 전통 있는 한  
식당이다. 백운산 아래서 어머니가 시작해 딸 박미란(36) 씨가 손맛  
을 이어가고 있다. 영종 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맛  
집으로 소문났다. 여기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만 쓴다”는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 숨어 있다. 이번에 드라마 관광 코  
스의 일환으로 ‘홍길동 산채비빔밥’을 선보였다. 여섯 가지 나물을 넣  
은 담백한 비빔밥을 깊은 맛의 고추양념장으로 쓱쓱 비벼먹는 맛이  
란. 장어, 오리, 꽃게를 주재료로 정갈하고 야무지게 차린 정식도 이  
집의 인기 메뉴다. ☎ 단해 746-2256



## 구읍배터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 사신들이 머물던 경원정(慶源亭)이 있던 곳으로, 무역선이 왕래하던 배터였다.  
영종대교가 놓이기 전까지 섬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영종도에서 월미도 선착장까지는 뱃길로  
20여 분 거리. 여객선이 하안 물곶을 일으키며 바다  
를 가로지르면, 새우과자에 맛 들인 갈매기들이 빙빙  
돌며 환영 인사를 한다. 바닷바람이 조금 차지만, 그  
마저도 기분 좋은 접촉이다.



드라마 ‘역적’  
인천 관광 코스

아라스튜디오(드라마 세트장) → 홍길동 산채비빔밥(단해) → 구읍배터 → 월미테마파크 → 월미전통공원(드라마 촬영지) → 송월동동화마을 → 차이나타운 → 국제신포시장



## 월미테마파크

한때 소풍을 갔다 하면 월미도, 놀이기구를  
탔다 하면 ‘디스코팡팡’이던 시절이 있었다.  
화려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간  
다. 창공에 걸린 대관람차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방망이질 친다. 전설의 디스코 놀이  
기구는 지금도 현란한 빛을 뿌리며 뱅글뱅글  
잘도 돌아간다. 월드스타 사이와 래퍼 스눅  
독이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바탕 놀  
다 간 뒤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 월미  
테마파크 761-0997



## 송월동동화마을

응봉산 자락에 있는 송월동은 동화마을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전국에서 찾는 관광명  
소가 됐다. 주말이면 관광객 수천 명이 이웃  
한 차이나타운, 자유공원과 함께 이 동네를  
찾는다. 돌고래 피자, 짜장 빙수, 동물 솜사  
탕 등 동화적인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즐  
거움이다.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  
영지인 송도석산에 걸려 있던 ‘별 비녀’ 구  
조물을 옮겨와, 소원을 이루는 길을 만들었  
다.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징표가 줄지어 있  
는 풍경이 프랑스 풍네프의 ‘예술의 다리’를  
연상케 한다.



## 월미전통공원(드라마 촬영지)

월미공원에는 행궁(行宮)이 있던 조선시대의 정원 양식을 재현해 놓은 전  
통공원이 있다. 자연의 품에서 관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던 선비의 여유  
와 기품이 느껴진다. 또 농작물이 싱싱하게 영그는 밭과 초가집이 있는 풍  
경에선 한민족의 소박한 정서가 전해진다. 안동 하회마을의 종가인 양진당을 비롯한 전통  
민가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다. 세트장은 촬영 후에도 허물지 않고 체험장으로 남겨놓을 예  
정이다. ☎ 월미공원 765-4133



## 차이나타운

130여 년 전 머나먼 이국땅에 뿌리내리면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는 본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중국  
식 사당 의선당,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 1930년대  
지는 중국식 가옥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거린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을 지나 이르는  
일본 거리에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향기가 난다. 한국에서 중국, 일본까지. 나라와 나라  
를 넘나드는 재미는,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이기  
에 누릴 수 있는 여행의 묘미다.



## 국제신포시장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합리적인 젊  
은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달  
라졌다. 비싼 호텔보다 저렴한 게스트

트하우스를 찾고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전통시장도 달라졌다. 신  
포국제시장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기념품으로 간  
직할 수도 있는 ‘신평통보’를 발행하고 할인쿠폰도 제  
공한다. 또 지원센터 한쪽에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골목골목엔  
닭강정, 쫄면, 순대, 공갈빵 등 군침 도는 먹거리가  
흘러넘친다.



마라도나,  
앙리,  
메시도 뛰었다!  
FIFA U-20

2017.05.20 ~ 06.11  
인천, 수원, 전주, 대전, 천안, 제주 개최

월드컵보다 젊다! 빠르다! 뜨겁다!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인천을 포함한 대한민국 6개 도시에서 열린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이달 22일과 25일, 27일 예선 6경기과, 다음 달 1일 16강전 2경기 등 총 8경기가 펼쳐진다. 디에고 마라도나, 루이스 피구, 라울 곤잘레스, 티에리 앙리, 리오넬 메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모두 FIFA U-20 월드컵 무대를 먼저 밟았다. ‘미래의 축구 스타들’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WHAT FIFA U-20

월드컵보다 젊다! 빠르다! 뜨겁다!

기다려왔다. 이제, 전 세계가 ‘TRIGGER THE FEVER(열정을 깨워라)’를 외칠 준비를 마쳤다. 전세계 필드를 누빌 미래 축구 스타들을 만날 절호의 기회.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FIFA U-20 WORLD CUP KOREA REPUBLIC 2017)’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천, 수원, 전주, 대전, 천안, 제주 등 대한민국 6개 도시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국제축구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FIFA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빅 이벤트. 단일 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이며, 가장 먼저 탄생한 세계 선수권 대회이기도 하다. 그 전초전격인 ‘FIFA U-20 월드컵’은 월드컵 바로 다음가는 수준의 대회로, 청소년 축구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각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 팀이 참가한다. 올해는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개국 선수 6천여 명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축구 유망주들에게는 일류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한 꿈의 무대, 세계 팬들에게 미래의 축구 스타를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FIFA U-20 월드컵이다.

WHERE FIFA U-20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8경기

FIFA U-20 월드컵 코리아는 대회 기간 인천을 비롯한 대한민국 6개 도시에서 예선 및 본선 총 52경기를 치른다. 이중 인천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예선 6경기, 16강전 2경기 등 모두 8경기를 연다.

먼저 이달 22일에는 에콰도르 대 미국(오후 5시), 사우디아라비아 대 세네갈의 경기(오후 8시)가, 25일은 에콰도르 대 사우디아라비아(오후 5시), 세네갈 대 미국(오후 8시)이, 27일은 포르투갈 대 이란(오후 5시), 우루과이 대 남아공(오후 8시)이 예선전을 치른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B조 2위와 F조 2위의 경기(오후 4시 30분)와 F조 1위와 E조 2위의 16강전(오후 8시)이 펼쳐진다.

이밖에, 문학월드컵경기장과 문학보조경기장,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송기잔디구장, 송도LNG축구경기장 등 5개 경기장은 훈련장으로 사용한다.

WHY FIFA U-20

미래 축구 스타들의 열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개최 도시들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시는 ‘U-20월드컵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포터스와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선수들을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고 대회 열기를 더할 것이다.

1979년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1991년 포르투갈의 루이스 피구, 1995년 스페인의 라울 곤잘레스, 1997년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 그리고 2005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까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모두 FIFA U-20 월드컵 무대를 먼저 밟았다.

‘미래의 축구 스타들’을 만날 절호의 기회.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에 이어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대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스포츠 빅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인천의 힘을 다시 보여줄 때다.

인천 경기 일정

경기일 (더블헤더)

05월 22일 (예선)

05월 25일 (예선)

05월 27일 (예선)

06월 01일 (16강)

첫 번째 경기  
17:00~



:



에콰도르 VS 미국



:



에콰도르 VS 사우디아라비아



:



포르투갈 VS 이란

B조2위 : F조2위  
(16:30~)

두 번째 경기  
20:00~



:



사우디아라비아 VS 세네갈



:



세네갈 VS 미국



:



우루과이 VS 남아공

F조1위 : E조2위

티켓 판매

경기

1등석

2등석

FEVER

성인 (만16세~)

유소년 (만4~15세)

성인 (만16세~)

유소년 (만4~15세)

예선

₩ 20,000

₩ 10,000

₩ 15,000

₩ 7,000

₩ 10,000

16강

₩ 30,000

₩ 13,000

₩ 23,000

₩ 10,000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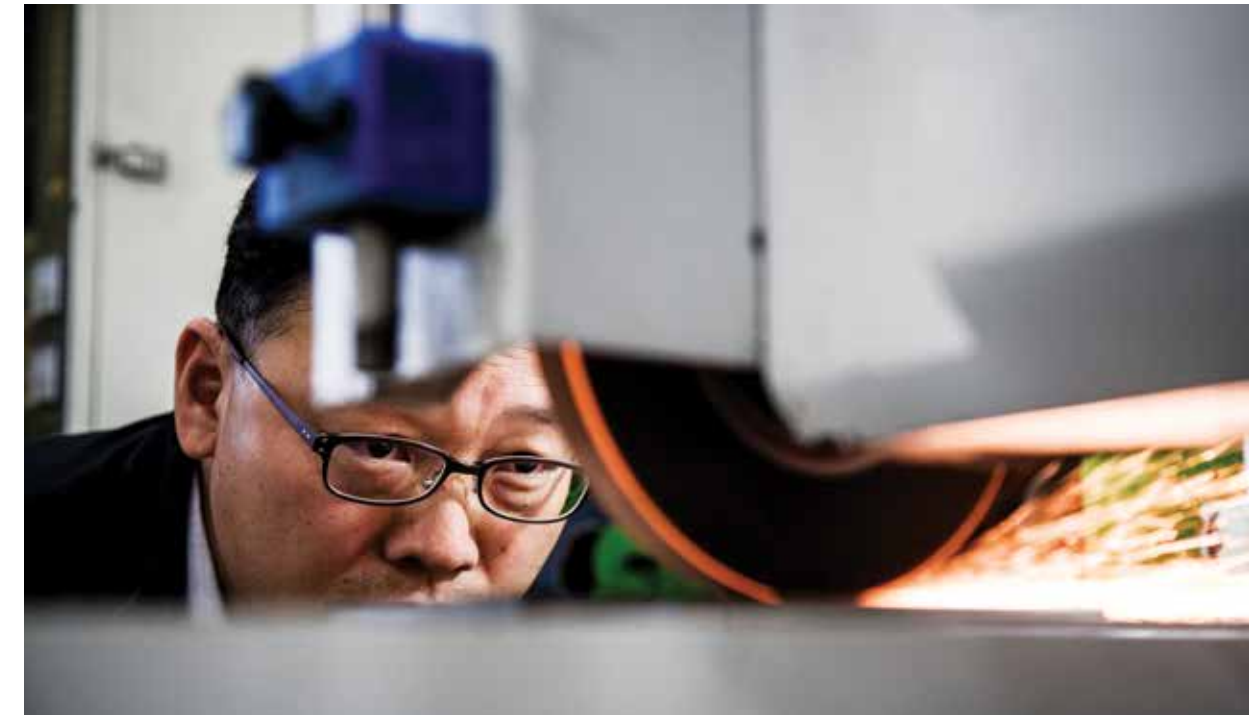
구매방법 : 인터넷 / 모바일(kr.FIFA.com/u20ticket). 콜센터 (1544-1555)  
할인혜택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 50%, 단체(11명이상) : 30%, 4~10인 : 15%



## 오른 계단만큼, 그 너머 세상이 보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7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마저 잃었다. 원치 않던 기술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악착같이 자격증을 따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다. 자기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실력과 기술은 결국 ‘대한민국 명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다. 2011년, 38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연소 명장이 된 원용기 명장은 “오르는 계단의 수만큼, 그 너머의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국내 뿌리산업의 핵심, ‘금형’을 이끌어 온 기술자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바로 사람의 기술입니다. 기름 때 묻은 손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 생활 속 모든 부분에 금형이 있습니다. 볼펜, 화장품 용기, 카메라 케이스, 휴대폰, 가전제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이 아닌 것은 모두 금형으로 제작했다고 봐야합니다. 금형 덕분에 생활이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죠.”

사출금형 분야 명장인 비즈엔몰드 원용기 대표(44)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다. ‘사출금형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한다’는 철학과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매진하고 있다. 사출금형이 제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똑같은 상품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금속을 깎아 부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 작업은 ‘제조업의 승부처’라 불릴 만큼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만큼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성이 뒤따른다. 원용기 명장은 세계 최고의 금형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 금형산업 성장이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바로 사람의 기술입니다. 기름 때 묻은 손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드론 찰칵, 달리 본.다.

응봉산 송월동



## 백설공주, 송월동 골목에서 길을 잃다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이제 ‘송월동’ 하면 ‘동화마을’이 먼저 생각난다. 그 덕에 주말이면 주변은 온통 교통 몸살을 앓는다. 마을이 알록달록 색칠되기 전 이곳은 응봉산(자유공원) 뒤편에서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던 조용한 동네였다. 개항 이후 송월동 산마루에는 독일인을 중심으로 한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거주했다. 그들은 산기슭 남쪽 개항장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서 여유롭게 생활했다. 그런 이유로 기상관측, 전기회사, 비누공장, 양조장 등 신문물이 들어와 이 동네에서 발아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물러 간 후 일본인들은 이곳의 요지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산 끝자락 가파른 곳에 서 있던 독일 상인 파울 바우만의 주택(현 자유유치원)이다. 러일전쟁 직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우아한 서양식 2층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을 두 번이나 지낸 사이토 마고토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총독이 눈독을 들일만큼 좋은 풍광이 펼쳐진다.



현재의 만석고가교(인도교) 아래 기차길 옆에는 시장이 있었다. 1937년 2월 송월공설시장으로 개설되었는데 가축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 흔히 ‘돼지장터’라고 불렸다. 광복 후 송월시장은 만석동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해 한때는 꽤 번창했다. 철도 길이 담으로 막히면서 만석동과 단절이 되면서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동화마을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철거 중이다.



1. 인천기상대
2. 자유유치원
3. 송월교회
4. 자유공원
5. 섭리복지센터
6. 송월아파트
7. 송월시장





드론 찰칵, 달리 본.다.

응봉산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전 송월동

송월동 비탈길에는 동일방직과 이천전기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집들이 아기자기하게 이어졌다. 세월이 못 이겨 퇴락하던 이 골목이 2013년부터 대대적으로 화장(化粧)을 넘어 분장을 했다. 낡은 담장과 옹벽에 세계명작동화를 테마로 한 그림과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아예 '송월동 동화마을'이라고 개명했다. 도로시길, 빨간모자길, 북극나라길, 백설공주길, 엘리스길 등 다양한 테마길을 따라 오즈의 마법사, 인어공주, 라푼젤 등 수많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낯선 대한민국의 인천 송월동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송월동에는 '동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송월초등학교 아래쪽에는 이제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기와집 골목이 있다. 1950년대 중반에 조성된 도시형 한옥촌이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곳곳이 퇴락했지만 기와집의 우아한 자태와 기풍은 색칠 당하기 이전의 '비(非)동화마을' 송월동을 힘겹게 보여 준다.



인천기상대가 문을 연지 110년이 넘었다. 1905년 북위 37.28° 동경 126.38° 응봉산 꼭대기에 등지를 틀었다. 당시 인천측우소는 국내 13개 도시에 있는 지방측우소는 물론 만주지방의 관측소까지 통괄했다. 일본 기상대, 런던의 그리니치천문대와 기상정보를 주고받을 만큼 보유 기술도 뛰어났다. 날씨 파악은 일제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인천기상대의 옛 주소는 전동이지만 정문이 송월동 쪽으로 나있어 심리적으로 이 동네에 속한다. 몇 년 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유서 깊은 원통 모양의 건물이 사라졌다. 이후 새 청사가 들어섰다. 새로 지은 2층 건물이 놓인 기상대 봉우리의 실루엣이 영 어색하다.



자유공원을 품은 응봉산은 한 때 '오포산(午砲山)'으로 불렸다. 100년 전 관측소 마당에서 쏜 대포 굉음이 매일 인천 시내에 울려 퍼졌다. 대포 소리가 난 시간은 정각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리였다. 당시만 해도 시계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관측소에서는 매일 정오에 공포를 쏘았다. 이후 오포는 사이렌으로 대체되었다. 점심때가 되면 긴 사이렌 소리가 정오를 알렸다. 광복 후, 사이렌 소리는 정오가 아닌 자정에 울렸다.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99만 5천65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4%로 늘어나며, 2060년이면 5명중 2명(43.10%)이 노인이 된다. 인천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취미생활은 물론,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우리 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확대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100세 시대, 일자리를 찾고 싶다

일단 가까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우리 시는 올해 527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2만4천 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시는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 (주)미추홀카페를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자립시켰으며, 각 구의 실버카페 사업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버택배 사업, 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한 송도 캠핑장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정착시켜 왔다. 이로 인해 시는 공익형사업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시장형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각 구별로 운영되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2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 886-1855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 762-2288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 214-570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 888-8260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 818-211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 466-8836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 528-6080 •계양구시니어클럽 : 555-6330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 569-1363 •강화군 복지지원실 : 930-3343  
•옹진군 복지지원실 : 899-2333

### 더 다양한 노인 일자리는 있을까?

우리 시는 올해부터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아동 학대 예방과 홍보 강화를 도모하고자 ‘어르신 아동지킴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 지원 등으로 22개 수행 기관에서 5천 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 부문 협력을 통해 조경원, 요양보호사, 주유원, 경비원 직종에 대해 어르신을 파견하는 인력 파견 사업(1천 명)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업체)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추진을 통해 400개의 노인일 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3

###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땐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해보자. 우리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 및 일상생활을 돌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외에도, 실시간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안심폰’을 지원한다. 사랑의 안심폰은 어르신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돌보미에게 연결되는 긴급 연락 기능과 움직임 감지센서, 영상 확인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4

### 여가를 누릴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

노인들에게 있어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여가를 즐기는 일이다. 우리 시는 노인종합문화회관과 9곳의 노인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정보통신, 컴퓨터 활용, 요가, 생활체조, 교양, 외국어 교육, 가야금, 서예, 미술,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령층 정보화교육’도 무료로 진행한다. 컴퓨터 기초는 물론, 인터넷, 한글, 홈페이지 제작 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다.(www.itstudy.or.kr)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2

### 몸이 아픈데, 진료 및 치료비가 걱정이다

우리 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노인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무릎 인공 관절 수술도 지원한다. 의치 사업 대상자는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료 안(眼)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검진 결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이 발견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 대상자에 한해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문의 : 시 건강증진과 ☎440-1594, 노인정책과 ☎440-2817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갑작스럽게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땐 당황하지 말고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를 이용해보자.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 보조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 금융 사업이다.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 최고 7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초기 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1년 또는 2년의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출동! 박물관 어벤져스, 300여 년 전 화포 ‘불랑기포’를 깨우다

“인천박물관의 근본 사명의 하나인 인천 향토사 완성은 인천 부근 산재하고 있는 고적조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첫 번째 학술 조사 <인천고적조사>를 마무리하며 이경성 관장이 한 말이다. 그로부터 68년이 흐른 지난 3월 21일, ‘박물관 어벤져스’가 강화도에 떴다. 조선 숙종 1679년 강화도에 지어진 ‘건평돈대’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글 배성수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1



2

1. 발굴 전 건평돈대 항공사진  
2. 건평돈대 발굴현장  
3. 건평돈대로 출동한 박물관 어벤져스



3



4. 건평돈대 남동측 포좌에서 모습을 드러낸 불랑기포  
5. 불랑기 포신에 새겨진 명문



5

루어졌고, 출토되는 유물도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조사원 자격 기준을 충족할만한 신규 인력이 충원되면서 발굴조사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겨울 기운이 막 가신 지난 3월 21일, 강화도 서쪽 해안 건평리 산비탈에 박물관 어벤져스가 출동했다. 조선시대 유사 시 강화도로 옮겨올 조정과 왕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54개 돈대 중 하나인 ‘건평돈대’ 발굴을 위한 조사단이 구성된 것이다. 문화재청에 ‘발굴 조사 및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한 후 첫 발굴인데다, 강화도 돈대에 대한 전면적인 학술 발굴조사는 처음이었기에 건평돈대를 마주한 조사단에는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남북으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돈대는 그간 세월의 풍파를 말해주듯 부분 부분 무너져 내린 상태로 조사단을 맞았다.

첫 삽을 뜬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돈대 전면에 배치된 4개의 포좌 중 가장 남쪽에 있는 포좌의 조사에 들어갔다.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를 들어내고 쌓여있는 흙더미를 조심스레 퍼내는 순간, 무언가 검은 물체가 눈앞에 드러났다. 표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처음에는 한옥 지붕에 사용하는 기와로 생각했지만, 흙을 조금 더 파내자 금속 재질의 포신을 가진 완벽한 자태의 불랑기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흙으로 뒤덮인 포신 위로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의 흔적이 조사단의 가슴을 뛰게 했다. 급히 박물관으로 옮겨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자 글자의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1680년 2월 강화도에서 사용할 불랑기포 115문을 만들어 진상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천운이었다. 지금 전해지는 불랑기포는 모두 예닐곱 점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포좌에 거치된 채로 발견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330년간 그 자리에 잠자고 있던 건평돈대의 ‘불랑기포’는 인천 역사를 밝히려는 사명감으로 뭉친 박물관 어벤져스에 의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조사단은 한 달 넘는 발굴조사를 통해 그간 문헌에서만 전해지던 조선 후기 강화도 돈대의 축조 방식 등을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어벤져스 3편의 내용보다 박물관 어벤져스가 다음에 밝혀낼 숨어있는 인천의 역사가 더 기대된다.



CULTURE  
CALENDAR

05月

03.

하늘을 나는 ‘피터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010-3240-7181

05.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부평아트센터 구름마당  
오후 2시~6시  
무료  
☎ 500-2000

06.

제1회 인천 춤, 풍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1만 원  
☎ 865-5474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어린이를 위한 가족뮤지컬  
‘별주부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앤서니브라운 감성 음악극  
‘우리 엄마’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2시~5시  
전석 1만 5천 원  
☎ 500-2000

07.

‘2017 이미지孝 콘서트-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5시  
VIP 9만 9천 원,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 1566-6551

어버이날 특집  
‘트로트 빅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6만 원, S석 5만 원  
☎ 580-1135



10.

제5회 러시아 음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2-718-0918

류미희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 원  
☎ 02-2265-9235

12.

2017 ROSE DAY FESTA  
스탠딩에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7만 원, S석 6만 원  
☎ 1566-6551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우리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부평키즈페스티벌  
스타일리쉬 액션 뮤지컬  
‘레이디버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R석 3만 5천 원 S석 2만 5천 원  
☎ 500-2000

13.

2017 ROSE DAY FESTA  
몽니, 전기뱀장어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 1566-6551

인천플루트콰이어 제17회  
정기연주회  
‘Flute and dance’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010-3770-2581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중국기예단과 함께하는  
‘추억의 서커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부평키즈페스티벌  
스타일리쉬 액션 뮤지컬  
‘레이디버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3만 5천 원 S석 2만 5천 원  
☎ 500-2000

뮤지컬 동요콘서트 ‘구름빵’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 원  
☎ 460-0560

14.

2017 ROSE DAY FESTA  
볼빨간 사춘기, 스웨덴 세탁소,  
바닐라어쿠스틱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뮤지컬 동요콘서트 ‘구름빵’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 원  
☎ 460-0560

17.

2017 커피콘서트III 이원국발레단  
사랑의 세레나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19.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1566-6551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재즈로 엮어가는 시민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20.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

제10회 효 국악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010-6296-5067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클래식 이야기 ‘꽃향기 노래되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우리가족 토요일 N 클래식  
시리즈 III ‘차이코프스키,  
엘가 편’ - 나무참배 오케스트라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5천 원  
☎ 505-5995

자베르 VS 장발장  
‘두 남자 이야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초·중·고등학생은 무료,  
일반인 6천 원  
☎ 760-3538

21.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

제2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1만 원  
☎ 873-7772

22.

창의적 예술체험을 위한  
‘교과서 예술여행’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10시 50분(24일까지)  
전석 2만 원  
☎ 580-1135



22.

인천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인의 노래’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1588-2341

2017 브런치 콘서트 리렘버  
클래식, 루치아노 파바로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 5천원  
☎ 500-2000

26.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3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그리고 브람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2017 춤추는 도시-인천  
‘개막공연 - 춤길,  
명인·명무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인천시립무용단  
1588-2341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팝카펫라 원달러의 뮤직뽀페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베이스 스텀프와 함께 하는  
Jazz with the Tap.  
베이스 스텀프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27.

가정의 달맞이 스텀라오페라  
스타(STAR)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12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 888-9911

2017년 인음주니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888-0808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2017 춤추는 도시-인천  
‘릴레이 댄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1588-2341

인형음악극 ‘깡깡나무’

남동소래아트홀  
스튜디오제비(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1만 원  
☎ 460-0560

28.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51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2만 원  
☎010-3764-7829

30.

인천예술고등학교  
제20회 음악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433-3175

31.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2017 춤추는 도시-인천  
‘樂! 우리 춤의 빛과 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1588-2341

마티네콘서트 마실 ‘로미오와  
줄리엣, 음악으로 만나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천 원  
☎ 460-0560

문화가 있는 날 상설무대  
5월, 감성 데이트 콘서트  
‘뮤직, 매직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 원  
☎ 580-1166

이달의 展

어린이체험전 ‘나무야 나무야’

4월 28일~6월 30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전시실

전국민화공모대전 입상작품 전시 및 회원전

5월 2일~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삶을 가꾸는 도예전

5월 2일~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강효진 우리 민화전

5월 2일~16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예전 및 초대작가전

5월 9일~1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전시실

제4회 포토클럽미추홀회원전

5월 9일~1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제2회 한국서각작가회원전

5월 9일~1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신진작가 날개 달다 2017

5월 10일~30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2회 한국서각작가회원전

5월 16일~22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수형회전

5월 16일~22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공모당선전

5월 17일~28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이정근 도예전

5월 19일~3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박지영 달항아리전

5월 23일~29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0회 인천교원사진연구회사진전

5월 23일~29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기옥란, 송동영전

5월 23일~29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유재민 개인전 ‘산에 메아리’

5월 30일~6월 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모나리자로 보는 서양미술사

5월 30일~6월 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6회 멀티포토회원사진전 멀티포토회

5월 30일~6월 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8회 청관회전

5월 30일~6월 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NEWS BRIEF



## 아시아 최초 NASA 연구소 송도에 '둥지'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소가 아시아 최초로 인천에 세워진다.  
‘인하 IST-NASA 심우주 탐사 공동연구센터’로 명명된 이 공동연구소는 대한민국 우주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항공 분야 메카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에는 인하대 우주과학기술연구센터(IST) 인력과 NASA 연구인력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연구활동을 한다. 중점 연구 분야는 심우주 탐사용 소재, 센서, 로보틱스다.  
나사 공동연구소 설립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외 우수연구기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국비 34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일단 2022년까지 연구소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시와 인하대는 지난해 12월 산업융합 지구 지원 대상 선정을 계기로 송도국제도시를 항공우주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NASA 연구소 송도 유치는 항공산업을 특화한 인천산학융합지구의 연구 분야를 우주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동연구소 운영을 계기로 NASA의 선진 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기술 향상과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항공과 ☎440-4807

## 인천,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

과학로봇 인재 육성을 위한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표 선발대회가 앞으로 매년 인천에서 열린다. 우리 시와 사단법인 ITC로봇문화협회는 지난 4월 4일 인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04년 시작된 로봇올림피아드 코리아 행사는 전국을 돌며 열려왔지만, 올해부터는 인천에서만 열리게 됐다. 시는 로봇산업을 8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로봇 관련 행사 유치와 저변 확대에 주력해 왔다. 올해 행사는 8월 12~1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440-1522

## 인천서 시작된 U-20 월드컵 홍보 일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성공기원을 위한 ‘슛포레스트검프’ 캠페인이 지난 4월 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개최도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붐업을 위해 기획된 ‘슛포레스트검프’ 캠페인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6개 개최도시(인천, 수원, 전주, 대전, 천안, 제주)를 축구를 리프팅해 순회하며 거리 홍보를 진행한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1534

## ‘중국 무역장벽 뚫는다’…인천시-인천세관 업무협약

우리 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4월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인천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해 중국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인천세관은 한중 FTA 활용 교육과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내 비관세장벽 해소와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중국협력담당관 ☎458-7307

## 사드 여파에도 어울 화장품 중국 수출 순항

인천화장품 제조사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중국의 ‘사드 여파’ 속에서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 인증을 받았다. 우리 시는 어울의 홍삼 비크림, 마스크팩, 폼클렌징 2종 등 총 4개 제품이 지난 4월 5일 중국 국가식약품 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말 인증받은 11개 제품을 더하면 현재까지 어울 제품 중에서는 총 15개 제품이 CFDA 인증을 받았다. 한편 어울은 인천시와 화장품 제조사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로 2014년 10월 론칭 이후 현재까지 누적 매출 80억 원을 기록했다.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440-3273



## ‘투자유치 가이드북’ 발간



우리 시는 지난 4월 4일 인천지역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인천의 투자 강점, 투자 인센티브, 투자유치 대상부지, 투자유치 행정 매뉴얼 등 총 10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 항만 배후 지역, 공항 배후지역, 산업단지 등 투자 유치가 가능한 대상부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컬러로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시 관리대상 부지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정보도 포함됐다.  
문의 : 시 투자유치과 ☎440-3299

## 백령도·대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우리 시가 백령도와 대청도의 자연경관을 국내 외에 알리기 위해 오는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인증 획득 후에는 오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도전할 방침이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백령·대청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25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까지의 지층이 다수 분포돼 있다. 특히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성 초기에 바다에서 번성한 남조류 화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생대 생명체 흔적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3



##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추진…내년 3월 개장

우리 시는 연수구 솔찬공원에 있는 지상 1층, 전체 넓이 376㎡ 규모의 자연학습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수의사 2명,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며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시는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건립되면 송도에 사무국을 둔 국제기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연계해 야생동

물 구조치료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3



밤이 아름다운 인천 명소 10곳 밝힌다



인천의 밤이 아름다워진다. 도시를 밝히는 야간 경관 10대 명소가 내년까지 지역 곳곳에 조성된다. 시는 지난 4월 20일 시청에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야간 경관 조성사업에 나섰다. 내년까지 야간 경관 10대 명소를 지정해 도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시티투어 버스 운영 등을 통해 관광체험 코스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440-4792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소래포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9일 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재래어시장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4611m<sup>2</sup>를 해제하고, 인근지역을 합해 5천53m<sup>2</sup>를 ‘소래어시장 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구 전체를 ‘방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남동구는 각종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어시장과 식당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4642

전국 최초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서비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17일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KEB하나은행과 ‘고령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한 상담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 KEB하나은행은 노인의 노후 자금설계 상담, 금융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이달 웅진군 덕적면을 시작으로 인천 시내 경로당 1천400곳을 직접 찾아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440-4203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10만 명 돌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www.cyber.incheon.kr)의 1분기 수강생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부터 13년째 운영해온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다. 이용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천3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 외국어, 자격증, 소양·취미 등 60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부 강의는 모바일(m.cyber.incheon.kr)로도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인재개발원 ☎440-7686~7

‘사랑의 밥차’ 운영…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우리 시와 사단법인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월 22일 연수구 청학동 성호어린이공원에서 노인 300명에게 무료급식을 한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인천 곳곳을 돌며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랑의 밥차는 흑서기인 8월을 제외하고 인천 8개 군·구를 돌며 주 1회씩 총 31회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인천시와 군·구 공무원을 포함해 1천295명의 자원봉사자가 사랑의 밥차 배식에 참여, 노인 9천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문의 : 보훈다문화봉사과 ☎440-2953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8곳 선정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68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3개, 동구 5개, 남구 11개, 연수구 12개, 남동구 9개, 부평구 8개, 계양구 5개, 서구 4개, 강화군 10개, 옹진군 1개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네트워크 운영, 마을공간 조성 등 모두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사업에 모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440-4969

IMAGE NEWS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로세~ㅜㅜ  
#미세먼지, 널 어쩌면 좋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늘은 쉽니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시행하고~  
#관할 사업장 · 공사장 조업 단축하고~

미세먼지에  
빠앗긴 봄.  
돌려드립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산소같은  
인천!

#벚꽃 엔딩 말고, #미세먼지 엔딩~  
#맑고 깨끗한 인천, 오늘도 해피엔딩!



# BRIEF NEWS



## 상임위원회 회의 5월부터 ‘인터넷 생중계’



인천시의회가 5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다. 기존에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한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생중계는 5월 11일~19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부터 실시된다. 이로써 인천시의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생중계 된다.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생중계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인터넷 생중계 바로보기 - tv.icouncil.go.kr)

## 필리핀 마닐라시의회와 우호교류 약속



필리핀 마닐라시의회의 대표단이 지난 4월 13일 인천시의회를 찾았다. 마닐라시의회의 이번 방문은 인천과 우호교류 도시로서 양 도시의회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상호 친선을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그동안 전무했던 마닐라시의회와의 교류활동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닐라시는 필리핀 최대항구이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일컬어지는 마닐라항을 보유하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인천서 정기총회 열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11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낸 ‘서해5도 주민보호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들은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공병건 운영위원장

은 “서해5도 주민은 연평도 포격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보상 대책, 여객선 준공영제, 불법 조업 근절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처음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 기구로,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가 지난 4월 10일 ‘2016 회계연도 인천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주요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과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자치단체가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를 검사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빈틈없는 결산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2016 회계연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방문

태국 방콕시의회 니룬데 프라디쿨 제1부 의장을 단장으로 한 14명의 대표단이 지난 4월 20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콕시의회 방문은 지난 2007년 자매우호도시로서 협정을 맺은 이래 양도시 의회간 상호 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 우호를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제갈원영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양도시간의 상호 우호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도시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방콕시는 태국의 수도로서 최대 상공업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58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 큰 호응

지난 4월 14일 개최한 의정아카데미 제159회 청소년 의정교실에 부원초등학교 학생 29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의원,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모의의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또 전문가 스피치 특강과 인천시의원을 직접 만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청소년 의정교실은 올해 20개교 660여 명 학생의 참여가 계획되어 있다. 비교적 거리가 먼 강화

와 옹진군 지역의 학교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설명하는 ‘찾아가는 의정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실제 회의를 방청하는 ‘본회의 체험교실’과 시의회 각종 시설물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워보는 ‘의회견학’, 대학생과 성인 대상의 ‘시민 의정교실’ 등 다채로운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1999년 문을 연 인천시의회 의정아카데미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을 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18년간 운영되어 왔다.

## <인천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440-6135~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찰칵. 인천 사진 전시회

인천 사진을 공모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언제든 좋고, 스마트폰, DSL R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인천의 아름다움을 정성스레 담아낸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지난 여름, 소야도에서

바다보다 섬보다, 묵묵히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유민곤 /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대공원 벚꽃 엔딩

밤에 보는 벚꽃은 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양경임 / 남동구 장자북로

30년 전, 영종도 바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종도 앞바다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던 그때가.  
정연경 / 연수구 연수동



드라마 속 인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인 중구 배다리에 갔습니다. 브라운관에서 본 '노란 서점'을 실제로 봐서 반가웠습니다.

전재천 / 서울시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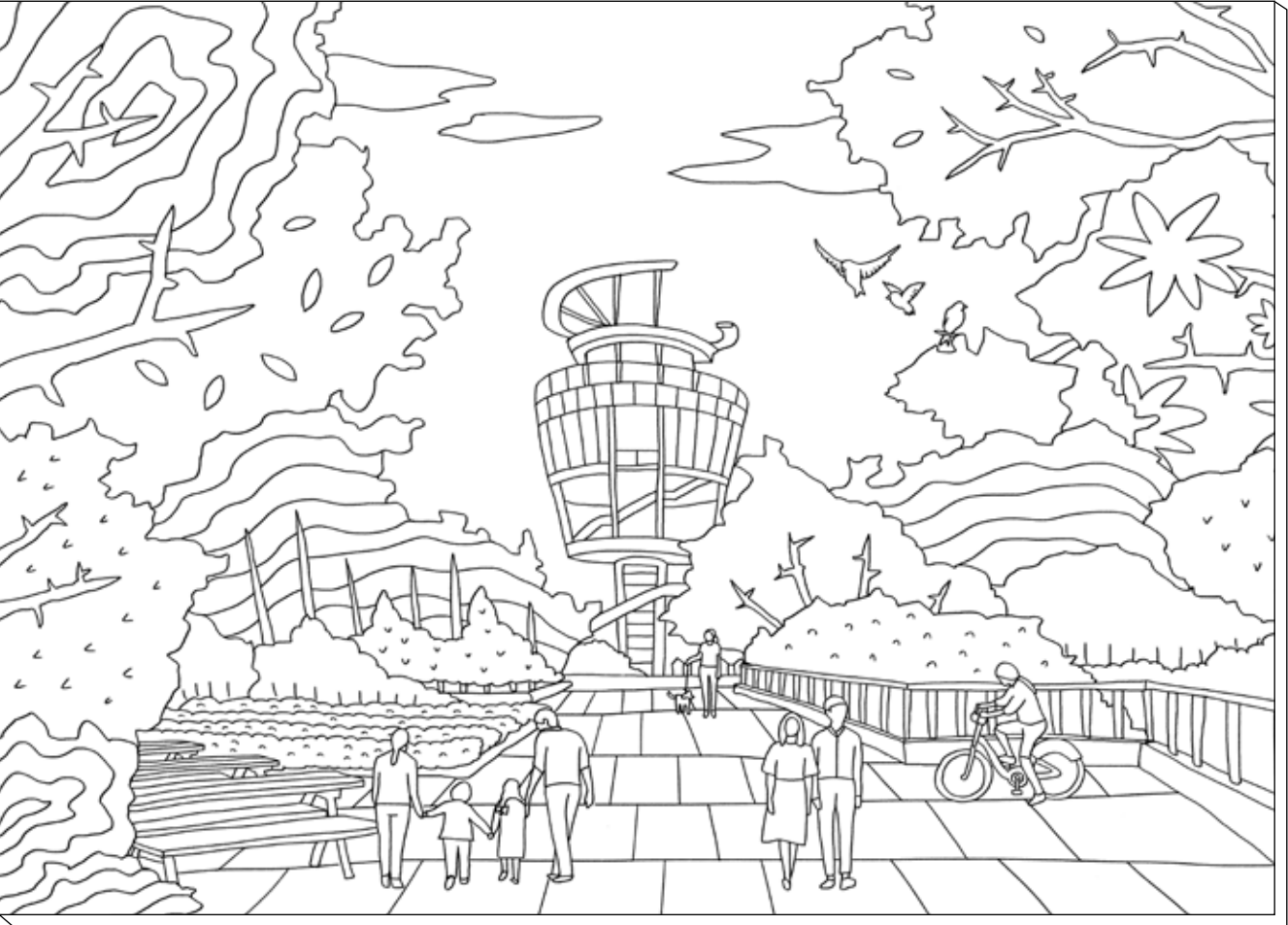
신구의 조화

송도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동북아무역타워입니다. 인천의 축소판을 나타내듯, 신구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윤훈상 / 연수구 독배로

여러분 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인천의 땅 길이 보입니다. 바닷길, 하늘 길이 펼쳐집니다. 월미산을 감싸듯 안고 돌아, 둘레길을 더듬어 걷다보면 만나는 월미전망대. 그곳에서, 모든 길로 통하는 인천의 오늘을 만나세요.



<굿모닝인천> 4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5월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시호 남동구 논현동



신창균 연수구 선학로



전세진 서울시 양천구



사진 & 컬러링북 보내는 방법

- <굿모닝인천> 5월호에 게재할 사진과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언제까지? 2017년 5월 19일까지
  - 어 댜 게 ? 사진을 찍어 휴대폰 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면 끝!
  - 어 디 로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17 은퇴금융 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모집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는 은퇴고령자가 은퇴준비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경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용** : 은퇴관련 금융지식 및 생활정보

**대상** :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시민(선착순)

**일자** : 5월 10일(수), 5월 16일(화), 5월 23일(화), 5월 30일(화)

**시간** : 오후 2시~5시 (1회당 3시간, 4주강의)

**장소** : 부평아트센터(전철 1호선 백운역 2번 출구)

**교육과정**

회차	경제금융	생활정보
1	재무설계	응급처치교육
2	소득과 지출관리	금융사기예방
3	자산과 부채관리	가족과 소통하기
4	상속과 증여	명사특강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고객센터 →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청 → 신청하기

**혜택** : 무료교육, 수료증, 소정의 사은품 지급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420-2154, 2155



##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생물의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5일 오전 10시~오후5시

**장소** : 국립생물자원관(서구 경서동)

**문의** : ☎02-3407-1564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사전신청 프로그램 (대상연령: 초등생부터) 총 2개	- ‘울려라! 생물자원 골든벨’ 퀴즈대회 (초등 4, 5학년 및 동연령) - ‘열려라! 보물창고’ 수장고 탐방프로그램 (초, 중, 고생 및 동연령) * 신청방법: www.nibrkids.com(선착순 접수)	
현장 참여 프로그램 (대상연령: 유아부터) 총 10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체험, 생물 주제 만들기 체험, 가족 놀이마당, 어린이 환경동요 합창단 공연, 생물자원 4행시 짓기 응모, 스티커타투 놀이, 애니메이션 상영 등	



##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송림종합복지관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은 수강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장소** : 송림종합사회복지관(송림 1동 주민센터 옆 위치)

**신청방법** : 전화신청

★동구 일대 아동 차량운행 진행

**교육기간** : 연중

**문의** : 송림종합사회복지관 ☎764-1185~6

프로그램	대상	일시	수강료
성인-아동 피아노교실	누구나	월, 수, 금(성인) 09:00~14:00 월~금(아동) 14:00~18:00	바이엘 월 50,000원부터 (교재비 별도)
아동 미술교실	6세 ~ 초등학생	화, 목 15:00~16:00 / 16:00~17:00	주 1회 월 20,000원/ 주2회 월 35,000원 (재료비 2,000원월도)
독서논술교실	6세 ~ 초등학생	월 15:00~16:00	월 15,000원
아나운서반 ‘위풍당당 스피치’	초등 1, 2, 3학년	금 16:00~17:00	월 15,000원
에쁜손글씨 pop	성인	월 11:00~12:30	월 20,000원
사교댄스	성인	금 11:00~12:00	월 5,000원
스포츠댄스	성인	수 11:00~12:00	월 5,000원
노래교실	성인	목 10:00~12:00	무료
장구-민요교실	어르신	화 10:00~12:00	월 10,000원

##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체험대전

‘금연이 가까워지면 건강이 가까워집니다.’ 시는 제30회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해 5월 27일 금연체험대전을 개최합니다.

**일시** : 5월 27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장소** : 원미 문화의 거리(학공연장)

**행사구성** : 금연의 날 기념식, 금연걷기대회(월미산 둘레길 4km),

금연존(Zone), 건강체험

**걷기대회 신청** : 시 홈페이지 또는 군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이벤트→ 제2회 금연체험대전 클릭)

**참가자 혜택** : 티셔츠 제공(사전 신청자에 한함)

**문의** : 시 건강증진과 ☎440-2723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 참가자 모집

우리 시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줄 해설가와 함께하는 이번 탐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역사문화 탐방 일정]**

**일시** : 5월 27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탐방지역** : 초지진, 온수리 성공회 성당, 가릉, 전등사

**참가비** : 무료

**준비물** : 중식 개별 지참,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모자 등

**[참가자 모집]**

**대상** : 초등생 이상 일반시민

**모집인원** : 선착순 35명

**모집방법**

인천시청 새소식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홈페이지(www.landing915.com)에서 참가신청서 다운 후 메일로 신청

**신청방법** : 5월 1일 오전 9시부터 메일(landing915@daum.net)로 신청.

선착순 마감

**문의**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832-0915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 성년식’

연수문화원은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통 성년식을 개최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5시

**장소** : 원인재 (문화재자료 제5호, 원인재역 1번 출구 50m)

**문의** : 연수문화원 ☎821-6229



07

### 2017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5월 20일 송도센트럴파크에서 2017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20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경원재 엠배서더호텔 뒤편)  
**행사일정** : 오후 1시 공정무역 페스티벌 오픈스태이지 / 오후 2시 공정무역 페스티벌 기념식 / 오후 3시 축하공연 / 오후 4시 공정무역 도전 골든벨  
**참여·체험** : 라떼아트 세계챔피언 엄성진 시연시음 체험, 핸드드립 체험 / 아르간 오일 천연비누 만들기 / 공정무역초콜릿 풍류 시식 / 공정무역 응원밴트 만들기 / 공정무역 월드컵 / 공정무역제품 전시홍보판매전 / 공정무역설탕 달고나 만들기 / 커피 무료시음 등  
**문의** : (사)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422-6116

08

### 시민 맞춤형 시정정보 MMS서비스 안내

우리 시는 시민의 개인별 관심에 맞춘 시정정보 새소식을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정정보 MMS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MMS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시정정보 새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료** : 무료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회원가입 시 서비스 신청 (※기존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제공정보**  
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시정정보 새소식 중 시민이 선택한 분야 시정정보 (안전, 교육,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보훈, 여성가족, 경제투자, 교통, 행정/재정/세정, 지역개발, 환경, 인천시시험정보, 자격시험정보 등)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26



09

### 2017년 제8회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우리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8회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16일(화) 오전 11시~오후 5시 (기념식 오전 11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사)부광웰페어&경기일보  
**참여** : 2만여 명 (초청내빈, 노인관계기관, 어르신, 시민 등)  
**주요내용**  
- 기념식 : 유공자 표창 20명(예정),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기념사 등  
- 사랑의 식사 : 참여 어르신 식사대접  
- 축제마당, 가족어울림마당, 이벤트마당, 문화체험 마당 등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4



10

###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모니터 모집 안내

우리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모니터’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모니터 200명  
**자격요건** : 교통행정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의 인천광역시민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분  
**역할 및 활동기간**  
- 역할 :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제출 (월 1회 이상)  
- 활동기간 : 7월 1일~12월 31일(6개월)  
**선발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 시내버스 서비스 모니터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접수기간** : 5월 10일~5월 26일(17일간)  
**제출방법** : E-mail 접수(sokfree@korea.kr)※ 팩스 및 우편 불가  
**활동특혜** : 시내버스 서비스 모니터 참가에 따른 우수모니터 시장 표창, 1일 최대 4시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선발결과** : 6월 1일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82

## 자연이 준 선물, 굴업도와 왕은점표범나비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굴업도. ‘굴업도(掘業島)’는 섬의 형태가 사람이 엎드려서 일하는 것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섬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서해의 낯선 외딴 섬일지도 모르지만 백패커들에게는 울주군 간월재, 평창 선자령과 함께 백패킹(Backpacking)의 성지 중 한 곳이다. 배낭을 짊어지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처럼 굴업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굴업도의 수식어가 그 답일 것이다.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굴업도는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문명의 도움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패킹의 의미와 맞닿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반 정도 크기인 굴업도는 서쪽 섬과 동쪽 섬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를 목기미 사빈(沙濱)이 이어주고 있다.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큰말해변’, 염분에 바위가 풍화되어 생기는 토끼섬의 ‘해식와’, 코끼리 엉덩이와 뒷다리 모양을 닮은 ‘코끼리 바위’ 등 발길 닿는 곳곳이 자연이 준 선물이다.

굴업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왕은점표범나비’다. 초지가 숲으로 바뀌거나 개발되면서 육지에서는 많이 사라진 왕은점표범나비를 굴업도에서는 볼 수 있다. 왕은점표범나비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네발나비과 곤충이다. 날개를 편 길이가 5.3~6.8cm로 표범나비 무리 중 가장 크며,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6~7월에 최성기를 이룬다. 산지의 초지대나 숲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며 개마초, 큰까치수영, 엉겅퀴 등의 꽃에서 꿀을 먹는다. 인천 굴업도를 포함한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해외에서는 극동러시아,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외투가 가벼워진 봄, 간단히 짚 가방을 짊어지고 손에 닿을 듯한 하늘,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별,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굴업도로 떠나보자. 가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연이 준 선물들을 눈 속에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내가 자연인지, 자연이 나인지, 장자의 ‘호접몽’처럼 왕은점표범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왕은점표범나비  
학명 : *Fabriciana nerippe*



# 단 한번이나 딱 하나만의 소원을 보면서



글 **최제형 시인**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벚꽃이 피었다 진다. 삼동 긴 겨울을 버티며 고목의 살갓을 뚫고 나온 새싹들은 불과 일주일 정도 꽃을 피우고는 한꺼번에 어디론가 쏠려가 버린다. 갈 길을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읊었던 글처럼 천하 만물은 때가 되면 주어진 역할을 마치고 미련 없이 길을 떠난다. 봄비 오는 날 진눈개비처럼 휘날리는 벚꽃무리를 바라보는 심경은 차라리 장엄한 서사시 그 자체다.

우리네 인생도 저래야 한다. 삼강오륜을 들추지 않더라도 나라님이든, 가장이든, 어머니든, 기업인이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후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아무리 긍정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티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지며 고성을 질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하면 육해서 이웃 간에 해코지한 뉴스가 그칠 날이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자. 나는 몇 점짜리 아버지이고 어머니 일까? 직장상사로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무시로 돌팔매를 던져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인가? 주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둘러보고 있나?

장애인들의 문학작품에 대해 심사를 볼 기회가 있었다.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청각, 시각장애 등 하나같이 중증장애인들이었다. 심신은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분들이 평생의 좌절과 울분을 내려놓은 채 창작 글을 쓰고 있었다. 단 한번이나 딱 하나만이라는 지극히 소박한 소원을 화두로 잡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완벽한 우리들이 무언가를 더 내놓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봤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내놓지 않는다면 남도 내놓을 리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받을 것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수분지족 (守分知足)

스스로 자신을 알아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고 산다.

오래 전 모시던 분의 좌우명이었다. 그분은 정치계절만 되면 월가월부하는 하마평에도 결코 정치인의 길로 가지 않고 평생 행정가와 봉사자의 길만 가셨다. 나도 25년 공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동료, 후배들이 결을 스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단사 업소에서 복지직으로 퇴임하였다.

수분지족은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고, 스스로를 앎이며, 과욕을 부리지 않는 족함이니, 결코 세상의 시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 한 발만 물러서 세사를 관조한다면, 허구한 날 세 과시와 삿대질로 앞으로 나아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 날아라 새들아

그날, ‘계’ 댔습니다.

우루루루...

골목 풍경을 찍고 있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렌즈 속으로 들어 왔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맑은 ‘단체 스마일’로 출현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골목이 사라집니다.

아이들도 사라집니다.

- 동구 송림동